

6년 이어진 광주도심 교통 불편 드디어 끝났다

도시철도 2호선 도로 개방

1단계 16.3km 목표 구간 100% 개방
왕복 6-9차로 복구... 차량 흐름 개선
내년 3월엔 백운광장 등 제외 구간도
2027년 하반기 2호선 개통 목표 총력
姜시장 “기다려준 시민에 깊이 감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로 통제됐던 광주 도심 도로가 6년 만에 전면 개방됐다.

광주시는 22일 1단계 도로 개방 행사를 열어 시민 불편이 커던 공사 구간의 통행을 전면 재개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이날 시청 시민홀에서 그동안의 공사 추진 경과와 현재 공정 현황,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경과 보고에서 “1단계 건설 공사로 인해 그동안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강기정 시장이 약속한대로 1단계 도로 개방 목표 구간 16.3km에 대해 100% 개방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속도보다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공정을 진행했다”며 “대형 건설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과정에서 다행히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었고 철저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경과 보고 이후 강기정 시장과 시민, 언론인들은 함께 버스를 타고 시청을 출발해 1공구부터 6공구까지 개방된 도로를 점검했다.

그동안 왕복 2~4차로로 제한됐던 도로는 왕복 6~9차로로 복구되면서 교통 안전과 차량 흐름이 크게 개선된 모습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복공관은 전부 걷혔고, 자선 도색까지 완료된 구간은 차로 경계가 멀리서도 한 눈에 들어왔다.

다면 2공구 전체 구간과 3~4·6공구 일부 구간은 기증 포장까지만 마무리되고 표층 포장은 완료되지 않아 노면이 고르지 못한 채 개방됐다.

도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금호지구 일대와 백운광장 일원은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개방된 1단계 구간은 광주시청-금호지구-풍암지구-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 뒤



깔끔한 모습 되찾은 도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가 개방된 22일 서구 치평동 1공구(201-202정거장 사이) 도로가 원상 복원돼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백운광장과 정거장 4곳을 제외한 16.3km 구간의 도시철도 공사 구간 도로를 전면 개방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편을 잇는 총연장 17km 중 16.3km 노선이다.

지하 장비 반입구와 지하차도 공사가 겹친 일부 구간은 개방에서 제외됐다. 금호지구 입구사거리(204정거장), 금호시아아파트 앞(205정거장), 무등시장 주변(210정거장), 광주역 뒤편(219정거장) 등 정거장 구간과 백운광장

일원 등 687m다.

이 가운데 백운광장 일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지하차도·지하대피로·3단계 효천선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공정으로 개방 제외 구간은 240m다.

제외된 구간의 도로는 장비 반입이 완료되는

내년 3월과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설비 공사와 철도종합시험운행,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거쳐 2호선 1단계 개통 시점을 2027년 하반기로 설정하고 사업 추진에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12월 22일 오늘은 제가 약속한 대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도로 개방이 완료된 날”이라며 “을통불통한 도로를 오가느라, 막힌 도로 위에 서 있느라, 때로는 차량까지 손상해 하루하루가 더 힘들고 고단했을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국립의대 선결 조건 ‘목포대·순천대 통합’ 분수령

兩대학 구성원 오늘까지 찬반 투표

도의회 특위, 투표 적극 참여 호소

만큼 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대·순천대는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이날부터 23일까지 이를 간 대학 통합 안건에 대해 양 대학 구성원(교수·직원·조교·학생)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양 대학 모두 통합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구성원 투표에서 찬성 쪽으로 의견이 모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일부 교수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

어 투표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신중론도 있다.

구성원 투표 결과, 통합 찬성으로 의견이 모이면 양 대학은 통합대학 교명(‘전라국립대’·‘전남국립연합대’)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합수정신청서에 반영해 교육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의회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찬반 투표에 대한 양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특위는 “통합대학 설립과 국립의대 유치는 전남이 직면한 의료·교육·인구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지역의 장기적 미래를 좌우할 중대 전환점”이라며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을 앞둔 지금이야 말로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의 책임있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김재정 기자

Today

‘광주대표도서관’ 왜 붕괴 됐나? 6면

광주문인협회 문학마당 15면

안세영, 새 역사 향한 질주 계속된다 16면

전라남도 곳곳이 영화의 한 장면이 됩니다!

★★★★★

<모범택시3>, <폭싹 속았수다>
<파인: 촌뜨기들>

전라남도 로케이션 촬영지원

★★★★★

저에게 전남연기캠프는
꿈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발판이에요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

★★★★★

다들 부러워해요. 우리를 보고
너무 예쁜 곳에 살고 있다고

전라남도 찾아가는 영화관 ‘마을영화’

★★★★★

전남배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전남배우

★★★★★

컨테이너 특별관 야외에서
영화를 처음 봤는데, 별도 보이고 너무 좋았어요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